

# 모금과 구호



전국재해대책협의회



## 인 사 말 씀



우리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태풍과 여섯차례의 집중 호우가 쏟아져 전국에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되었습니다.

삼시간에 가족과 재산과 생활의 보금자리를 잃고 깊은 실의에 잠겨 있는 재해민을 보살피고저 본협의회에서는 신문사와 방송사를 통한 수재민돕기 의연금품 모집운동을

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동안 국내외 각계각층으로부터 기탁되어온 의연금은 총 328억원에 이르렀고 양곡을 비롯한 각종 생활필수품도 5백만점(환가액 100억원)이 접수되어 종합구호계획에 의하여 수해지구에 신속하게 배정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슬기롭게 재해를 극복해 왔으며 뜨겁고도 아름다운 동포애와 환난상구의 오랜 전통은 지금도 줄기차게 큰 강물처럼 불어나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협의회는 이제 창립27주년을 맞아 그동안 모집된 국민의 성금품과 실적을 대략 간추려 국민여러분에게 보고하여 드리며,

그동안 본 협의회를 통하여 사랑의 손길을 펴온 여러 기관과 각종 사회단체 및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1988년 2월

전국재해대책협의회  
회장 유건호